

돼지 사육두수 감소세 지속, 3월 돼지 사육두수 900만6천두

- 전분기비 2.4% 감소, 전년 동기비 0.2% 감소

2004년 3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900만6천두로 전분기에 이어 돼지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했다. 최근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03년 3월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900만6천두로 전분기 923만1천두에 비해 22만5두(2.4%)가 감소했으며, 2003년 3월 902만7천두와 대비해서도 2만1천두(0.2%)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월의 돼지 사육두수는 2002년 최초로 9백만두를 넘어선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들어 다시 9백만두를 넘어선 이후 900만두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월령별 사육두수는 2개월 미만 280만7천두, 2~4개월 298만9천두, 4~6개월 231만5천두, 6~8개월령 7만1천두, 8개월 이상 93만두로 전분기보다 각각 1.4%, 3.5%, 2.7%, 1.4%,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사육두수는 89만9천두로 전분기 91만두보다 11천두(1.2%)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91만6천두보다는 17천두(1.9%)가 감소했다.

규모별 사육두수는 1천두 미만 236만2천두로 전분기 대비 6.5%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8%가 감소했으며, 1천~5천두 사이는 500만4천두로 전분기 대비 1.1% 감소, 전년 동기 대비는 1.4%가 증가했다. 한편 5천두 이상은 164만두로 전분기 대비 3.5%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7.5%가 증가했다.

돼지 사육가구수는 1만3천940호로 전분기보다 8.5%(130농가)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보다는 무려 13.7%(221농가)가 양돈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구당 마리수는 646.1두로 전분기 대비 6.7%(40.5두), 전년 동기보다는 15.6%(87.2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육가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육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모화 추세로 가구당 사육마리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 54% "사육두수 늘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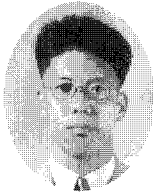
- 2분기 돈가 3월 평균보다 상승, 하반기 하락 예상

양돈농가들은 현 시세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현재 사육두수를 늘리려는 의견이 많은 것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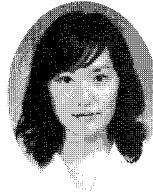
고진각 사무국장



박순철씨



손재현씨



오민정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는 지난 3월 22일 양돈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사무국장에

는 고진각씨를 채용했으며, 일반직원으로 박순철씨, 손재현씨, 오민정씨를 채용했다.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고진각씨는 대구경북양돈조합에서 조합원 지도경제업무를 담당했으며, 박순철씨와 손재현씨는 본회에서 양돈자조금 관련업무와 돼지고기 소비홍보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오민정씨는 경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이들은 3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양돈자조금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양돈자조금 사업과 관련 제반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가축사육의향 조사에 따르면 현상유지 33%, 증가계획 54%, 감소계획 13%로 현 두수에서 늘리겠다는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사육에 대해서는 33%가 현상유지를 꼽았는데 그 이유로는 '사육마리 수는 증가하는데 수출이나 소비는 살아나지 않아 양돈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며 '축산업등록제 등 오폐수처리 강화로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안전주의가 많았다.

또한 54%는 증가할 계획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농장경영 수지를 맞추기 위해', '비어있는 돈사에 사육마리수를 보충하기 위해', '현재 가격 강세'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12%는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양돈경기가 불투명한데 축산폐수 단속은 강화', '밀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사육두수를 감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들은 산지 돼지값은 두당 100kg 기준

4월 22만3천200원, 5월 22만7천600원, 6월 22만5천800원으로 3월의 22만8천원에 비해 조금씩 오르다가 7월 21만4천200원으로 하반기가 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규모별로 보면 1천두 이상의 규모 농가에서는 보합 또는 상승을 전망한 반면, 1천두 이하 규모의 농가에서는 하락세를 전망해 향후 돈가에 대해 엇갈리는 전망을 나타냈다.

하반기에 돼지값이 하락한다는 전망이 53%로 우세한데, 이에 대해 가격 강세로 인해 돼지 사육두수가 과잉상태라는 것과 가금인플루엔자 사태가 일단락 되면서 닭고기 소비가 증가해 돼지고기의 대체소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폭설 피해농가 '3억 특례보증'

농림부는 대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재해대책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해특례보증을 대폭

확대해 간이신용조사를 거쳐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할증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6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특별경영자금 650억원과 관련해 종전에는 피해농가가 재해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에는 행정기관이 피해농가 명단을 대출기관에 일괄 제공, 별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설피해 농가가 담보가 부족한 경우라도 대부분 재해대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재발 방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 허상만 농림부장관, 최영열 본회 회장 등 지난 3월 18일 국경검역 현장 점검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최영열 본회 회장,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송석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등은 지난 3월 18일 인천항을 방문, 국경검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림부는 매월 1회 이상 국경검역 및 지자체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지역(38개시군)에 대해서는 점검담당관을 지정, 매월 2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구제역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있어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 우려가 있는 해외여행자의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고 발판소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방역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농가가 자발적으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참여하고,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별방역기간(3~5월)중 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와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 9천7백여개 공동방제단과 소독차량 3백35대를 동원, 소규모 축산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자돈 돈열 항체양성률 2개월 연속 하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발표한 올해 2월 검역원 및 각 시·도별 돈열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월 한달간 자돈의 항체양성률은 66.7%로 1월 84.7%에 비해 18%포인트가 낮아진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비육돈과 모돈의 항체양성률은 항상대 2월 전체 돈열 항체양성률은 95.9%로 지난 1월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비육돈 95.2%, 번식돈 97.9%, 자돈 66.7%로 비육돈과 번식돈은 지난 달보다 각각 0.8%씩 다소 올랐으나, 자돈에서 돈열 항체양성률이 지난 달(84.7%)보다 18%포인트나 급락해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양돈농가들은 모든 돼지에 대해 1차 접종한 다음 20일이 지나 2차 접종하고, 자돈의 경우 40일령에 1차 접종, 60일령에 2차 접종, 모돈은 분만 후 14일 경에 접종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2월 돈열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지역은 △강원 화천 △충남 부여, 서천 △경남 진주, 창원으로 조사됐다.

돈열 예방접종 철저히 해야

- 10두 이상 검사결과 항체양성을 80% 미만시 과태료

돈열 예방접종을 더욱 철저히 빠짐 없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는 경북도가 돼지 5천두 사육농가에서 10두 채혈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와 재채혈 또는 검사가 가능한지 질의한 것과 관련, 농장 규모가 크더라도 농장당 10두 이상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돼지 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해야 하며, 재채혈 또는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바 재검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돈열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철저히 실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행성 설사병 산발적으로 발생 지속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2월 가축전염병발생 월보에 의하면 돼지 전염성위장염(TGE)과 오제스키병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전국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돈열의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유행성설사병(PED)의 경우 5개도 10개 양돈장에서 2,023두의 돼지에서 설사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2월 현재 누계 5,259두로 작년 동기 누계 8,694두에 비해서는 39.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설사병 발생농가 및 돼지 두수는 경기 2농가 400두, 충북 2농가 300두, 충남 4농가 610두, 전북 1농가 33두, 경북 1농가 680두로 나타났다.

농림부, 니트로푸란제 함유 동물용 의약품 수거 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 3월 2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검출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 수입 및 국내산 축산물 중 니트로푸란제 탐색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되었다고 보고됨에 따라 니트로푸란제 수거를 지시하고, 동물약품 도매상 및 농가에서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니트로푸란제 동물약품이 농가에서 사용될 경우 니트로푸란제 대사물질이 돼지 체내에서 약 8주 정도의 장기간 동안 잔류되어 검출될 가능성이 높고, 축산물내 잔류시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니트로푸란제 동물약품은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반품하도록 해야 한다.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 9월까지 마련 계획

- 농림부·환경부, "축산분뇨관리 추진기획단" 발족

농림부와 환경부는 지난 4월 9일 이원화되어 있는 축산분뇨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축산분뇨관리 이용 대책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환경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기획단은 양부처의 공무원 9명이 참여하는 공공처리팀과 자원화이용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박선숙 환경부 차관이 맡았다.

기획단은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 활성화, 공공처리시설 개선방안을 담은 공동관리대책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양돈농가들의 분뇨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 퇴비효과 뛰어나

- 경남 농업기술원, 가축분뇨의 퇴비효과 입증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 6일 '가축분뇨 화학비료 대체효과'에 관한 연구결과 가축분뇨의 퇴비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자 작물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연구에서 벼 재배때 화학비료 소요량은 ha당 질소 110kg, 인산 45kg, 칼리 57kg 등이 필요한데 완전히 발효시킨 가축분뇨가 이들 3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대체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작물별 가축분뇨 사용 기준량은 질소함량이 0.4%인 가축분뇨의 경우 1천㎡에 벼 2.8t, 보리 2t, 콩 0.8t, 옥수수 4.4t, 고추 2.6t, 오이 2.8t, 호박 2.5t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용하는 가축분뇨는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3개월 이상 저장탱크에서 발효시켜야 하며, 시설재배지에는 유해가스 발생 등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 사용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비용 절감효과와 화학비료 대체에 따른 영농자재비 절감 등 이중효과로 영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담보 설정된 돼지 구입 차제 해이

- 법원 "집합물로서의 효력" 인정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지난 4월 11일 철원축협이 양돈담보권이 설정돼 있던 돼지 1,170두를 구입해 3,000두로 불린 이모(45세)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돼지 3,000두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장 안에 있는 돼지들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번식·사망·판매·구입 등에 의해 돼지 수에 증감이 있더라도 양돈담보권의 효력은 개개의 돼지가 아닌 집합물로서의 돼지들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철원축협은 97년 12월 양돈업자 박모씨의 사료대금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박씨 농장의 돼지들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박씨가 원고의 승낙 없이 돼지를 판매·처분하다 2000년 12월 남은 돼지 770마리를 이씨에게 팔아넘기고 이씨가 같은 농장 돼지 400마리를 더 사들인 뒤 3천마리로 불리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물돼지 출현율 '줄지 않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돼지 냉도체(육질) 등급 판정을 받은 3만1천9백55두 가운데 3천9백77두가 2등급(물돼지)판정을

받아 12.3%의 출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월(12.8%)이나 전년동기(12.5%)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울들어 물돼지 출현율은 평균 12.4%를 기록한 가운데 예년의 경우 기온이 올라가면서 물돼지 출현율도 비례해 상승하는 함수관계를 보여온 만큼 당분간 물돼지 출현율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달 냉도체 등급관정 대상돈 가운데 암돼지의 경우 4천8백32두중 6백35두로 13.1%를 기록, 가장 높은 물돼지 출현율을 나타냈고, 거세가 5천6백66두중 11.7%인 6백64두로 뒤를 이었으며, 수돼지가 41두중 불과 7.5%인 3두만이 출현,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였다.

한·칠레 FTA발효, 삼겹살 관세 21.1%로 인하

-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크게 늘어

농림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됨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돼지삼겹살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데 금년도 관세는 22.5%에서 21.1%로 인하된다. 지난해 돼지삼겹살 수입량은 총 4만3천톤으로 이중 칠레산은 23%인 1만톤 정도였다. 한편 칠레산 돼지고기가 10년 안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한편 종돈은 지난 1일부터 무관세로 도입된다.

아울러 한·칠레 FTA가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3월 중순 현재 돼

지고기 수입물량 1만5천1백59톤 중 칠레산이 가장 많은 3천4백83톤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벨기에가 3천1백62톤이었으며 미국이 1천8백59톤, 프랑스 1천4백83톤 순이었다.

칠레산 삼겹살 10년 후 6,400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월 24일 펴낸 '한·칠레 FTA 발효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칠레에서 수입되는 주요 원자재는 이미 무관세가 시행되고 있어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칠레산 농림수산품의 소비자 가격은 해마다 낮아지는 관세 수준에 맞춰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칠레산 삼겹살(관세율 26.2%)은 kg당 8,000원에서 5년째 7,315원, 11년째 6,400원으로 떨어진다. 최근 칠레산 삼겹살의 국산 소비자 가격은 kg당 9,000원이라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농협 양돈사료 평균 9.1% 인상

농협사료는 지난 3월 19일을 기준으로 사료 가격을 평균 8.8% 인상했다고 밝혔다. 양돈사료 평균 인상율은 9.1%이다.

농협사료에 따르면 이번 사료가격 인상은 원료가격 상승과 해상운임 급등으로 인한 조치라는 것이다.

농협사료 한 관계자는 2월말 현재 분석 결과 오는 7월까지 사료가격 인상요인은 18% 가까이 되지만 양축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평균 8.8%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강릉 구제역 의심 한우 음성 판정

강릉지역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한우가 발견됐으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지난 4월 7일 강릉의 한 농가에서 출하한 한우 1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간이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까지 1천700여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육가공제품 5월중 가격 인상할 듯

최근 국내 돈가 지육 경락가격이 kg당 3천 300원~3천500원대를 형성하면서 원료육 가격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등 육가공제품의 가격을 이르면 5월중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햄·소시지 등 육가공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후지가격이 돈가 고공비행에 힘입어 kg당 3천원선을 육박하고 있으며, 브랜드육의 경우는 4천원을 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심각한 경영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체들은 돼지 원료육 등 원자재의 인상분을 모두 포함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의 가격 인상을 이르면 5월중에 단행키로 했다.

돼지고기 수출 크게 증가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2004년 1~2월 농산

물 수출동향'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4천800톤, 630만불어치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량의 경우 지난해 동기대비 199.3% 늘어난 것이며, 수출액의 경우는 무려 295.2%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돼지고기 수출이 급증한 것은 러시아(976%) 및 필리핀(43.6%)으로의 수출 호조의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도드람양돈조합, 도드람푸드 경영권 인수

도드람양돈조합(조합장 진길부)이 '도드람포크' 브랜드의 법적 소유주인 (주)도드람푸드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도드람조합은 지난 3월 11일 자회사인 (주)도드람 서비스(대표 손종서)를 통해 도드람 B&F 소유 (주)도드람 푸드 지분 50.5%를 총 58억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도드람조합은 이에 따라 조합원 전량 출하를 목표로 '도드람포크' 브랜드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다각적인 판매방안을 마련, 올해안에 현재 일일 1천5백두 수준의 출하물량을 100% 늘어난 3천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양돈산업 가격경쟁력 높아

향후 중국의 양돈산업이 한국 돈육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돈육 부위별 시세를 볼 때 중국이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한국으로 수출을 단행할 경우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한국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냉장육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중국산 돈육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면 한국 양돈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때 돼지고기 가장 많이 찾아

지난 4월 4일 창업연구소가 소비자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외식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식할 때 즐겨먹는 메뉴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가 34.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생선·해물요리(29.1%)가 차지했으며, 닭고기 요리는 전년 38.7%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한 18.3%를 나타내 가금인플루엔자 여파가 음식선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도새기(돼지) 축제", 5월 1일 개막

제주도는 제주산 청정돼지를 주제로 한 "제주 도새기축제"가 5월 1~2일 제주도 북제주군 제주경마공원에서 개최된다고 지난 4월 14일 밝혔다.

제주양돈축협(조합장 오경욱)이 제주산 청정돼지 상품 홍보를 위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가족이 참여해 돼지 오줌보로 축구경기를 하는 도새기(돼지의 제주 방언) 월드컵, 돼지

몰이, 돼지 달리기, 예쁜 돼지 선발대회, 돼지고기 썰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또 테마농장, 찰흙공예 체험, 댄스 콘서트, 어린이 사생대회, 양돈인 노래 한마당, 돼지고기 요리 250선 등의 행사와 도내 특산물 장터, 제주상품 전시관 등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 확대

-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신고 접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 가입 범위를 지난 2003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을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사용자(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는 공단에서 송부한 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인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오는 2006년 1월 1일까지 신고를 받아 전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02)2240-1078~80 **양돈**

본지 캠페인

내가 남부하는 자조금으로 양돈산업 안정 및 발전 이루어낸다.